

주 체 적 해 군 무 력 강 화 의 새 시 대 , 전 환 기 의 도 래 를 알 리 는 일 대 사 변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을 모 시 고

새 로 건 조 한 잠 수 함 진 수 식 성 대 히 진 행



(1 면 에서 계 속)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 핵공격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이관 중서를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장에게 수여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진수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 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그의 혁명공업전사들이 승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합선공업의 가일층 도약을 결심하였으며 합선공업의 중흥은 더는 물리설 길이 없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최중대과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련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전략전술적구상을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축하연설을 마치시자

열화같이 분출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진수식장을 진감하시었다.

봉대잠수함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식 잠수함공업의 발전방향과 신형잠수함개발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해군무력강화의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진수식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군의 주요지휘관들, 잠수함공장 책임 일군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병철원수는 공장 지배인으로부터 진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받고 진수를 명령하였다.

진수신호가 내리자 해군무력강화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순간을 체험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아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바다에 떠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적국방건설정책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과 열정이 있어 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과시할수 있게 되었다고 거듭 평가하시고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 세기 합선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짜배기애국자,

령해방위의 병기창을 지켜선 일선전투원의 값높은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9월 7일 시험항해를 위한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전술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었다.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부두에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인도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가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영예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해군대장과 정치위원 김창국해군중장, 조선인민군 해군 동서해함대 지휘관들, 수중함전대의 군정 지휘관들이 경모의 정을 안고 맞이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함의 무장체계와 잠함작전능력을 료해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혁명무력건설의 중핵적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해군무력의 첫 세대 영웅지휘관이었던 김군옥영웅의 이름을 아로새긴 잠수함의 지휘관, 해병들답게 전세대의 위대한 해병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준비에서도 혁명전쟁준비완성에서도 해군의 본보기, 전군의 모범이 되며 영웅해군의 새로운 신화를 계속 앞장에서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잠수함 전체 해병들과 함께 《김군옥영웅》함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군옥영웅》함의 전체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그 어떤 대적도 압승할 무적의 보검을 쥐어주시고 몸소 함에까지 오르시어 안전항해와 무훈을 기원해주시며 백전백승의 항로를 밝혀주시 위대한 령장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파출기로 간직하고 바다의 결사대, 해군의 역센 주먹으로 용맹떨쳐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진행된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식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사와 국가핵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선진해양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에로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시기자

